

광주·전남 대학 탐방

⑬ 호남대 '글로벌 IT 특성화 대학'

세계최고 수준 'IT-SS' 건립

<오감 체험형 IT복합시설>

정보통신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한 호남대학교(총장 장병완)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오감 체험형 IT복합시설인 'IT 사이언스 스퀘어'(IT Science Square, 이하 IT-SS) 건립을 계기로 글로벌 IT 특성화대학으로 비상하고 있다. IT-SS 건립에 따라 전기공학과 전자공공학과, 전파이동통신공학과, 컴퓨터공학과, 정보통신공학과 등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장비·시설을 확충하게 됐다.

215억 들여 4층 규모 2011년 개관

'4D 영상관' 'IT 체험관' 등 들어서

특히 이들 호남대 정보통신대학(학장 나현식) 학과를 비롯한 유관 학과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, 한국콘텐츠진흥원(KOCCA) 등 국내 전문기관은 물론 미국, 일본 등 IT선진국의 유수 연구소 등과의 산학연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 계열로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.

오는 2011년 6월 개관 예정인 IT-SS는 총 연면적 6천803㎡에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모두 국비 124억원과 민자 91억원 등 총 215억원이 투입된다. IT-SS에는 문화와 녹색성장의 비전을 최신 IT기술을 통해 관람자가 직접 상호교감하며 체험할 수 있는 '그린IT체험관'(1층)과, 세계의 IT발전사를 최첨단 기법으로 표현한 'IT박물관'(2층)이 들어선다.

또 IT 주요기업과 지역 벤처기업의 '상설전시관'과 함께 기업들의 신제품 전시시연 및 기술교육장이 들어서는 '기업관'(3층) 교사와 초중고 학생들이 실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'교육연구관'(4층)이 조성된다. 그리고 최상층에는 첨단IT의 발전상을 룸 스크린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한 'IT미래영상관'이 만들어진다.

특히 IT-SS에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, 후각, 청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요소가 가미된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는 '4D 영상관'과, 360도에서 영상을 송출해 입체화면을 만들어 내는 '서클비전' 등 세계적인 최첨단 영상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. 뿐만 아니라 자전거 페달 발전을 이용한 LED(발광다이오드) 조명시설과 수동 송풍기를 이용한 풍력 발전기 구동체험 등 '신재생 에너지 및

을 맞추고 학과를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IT와 정보통신 특성화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호남대 정보통신대학은 7개 학과로 구성돼 있다. 전력계통, 디지털 가전기기 및 자동화, 에너지 및 조명설비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'전기공학과'와 가전과 로봇, 제어계측과 전자기기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'전자공학과', 휴대폰과 DMB, 위성 및 항공통신 등 이동통신과 무선통신 및 방송 기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'전파이동통신공학과' 등 에너지와 정보가전 및 이동통신 산업분야 학과이다.

또 '컴퓨터공학과',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 운영, 멀티미디어 통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'정보통신공학과', 인터넷 보안 관리와 인터넷 운영, 홈페이지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'인터넷소프트웨어



호남대는 산학 협약을 통해 연중 정보통신대학 각 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 국내 정보통신회사에서 실습 중인 학생들이 연수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.

하면서 자연스럽게 IT기술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체험 전시 교육장이 될 것이다. 따라서 이러한 체험교육은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창의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특히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는 교육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철저히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.

IT-SS 건립 계기로 전통적 강세를 보여 왔던 호남대 IT 관련학과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입학 문의가쇄하고 있다. 호남대 정보통신대학은 IT 핵심 분야의 실무인력 양성에 초점

화과', 게임 개발과 운영, 웹디자인과 캐릭터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'게임애니메이션학과' 등이 있다.